

현대공업, 이차전지 분리막 코팅업체 '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'에 5 억원 지분 투자

▶ 전기차 분야 투자영역 확대

▶ 전기차 이차전지 분야 진출로 신성장동력 확보

<2021-01-12>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'현대공업'(170030, 대표이사 강현석)이 이차전지 분리막 코팅업체 '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'에 총 5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다고 12일 밝혔다.

현대공업에서 3억원, 현대공업 신성장 전략펀드인 HDI패스트이노베이션펀드에서 2억원을 출자했다. 이번 투자로 현대공업은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의 지분을 확보했다.

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은 이차전지의 주요 구성요소 중 분리막을 코팅하는 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다. 특히 세라믹 계열 분리막 코팅을 위한 설비를 자체 개발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. 이를 바탕으로 섭씨 150도씨 이상에서 수축률 3% 미만의 코팅 분리막을 구현하며, 공정 라인당 필요인력을 최소화하여 이익률을 높였다.

변형되거나 손상된 분리막은 이차전지의 발열과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변형이 적은 분리막은 이차전지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 때문에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은 이차전지의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현대공업 관계자는 "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변형이 적은 코팅 분리막이 전기차 전력공급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"며 "앞으로도 현대공업에 축적된 경험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"고 전했다.